

형식적 미학과 운명애의 향연

: 김말봉의 『꽃과 뱀』을 중심으로

진선영*

차례

1. 들어가며
2. 미학적 실험과 운명적 멜로드라마
 - 2.1 액자식 구성을 통한 주제적 완결성
 - 2.2 여로형 서사와 운명적 사랑
 - 2.3 그로테스크 판타지를 주조하는 초자연적 힘
3.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김말봉의 해방 이후 첫 완결작인 『꽃과 뱀』을 분석함으로써 신문에 연재된 인기작 중심의 편향된 연구를 지양하는 개별 작품의 의미론과 함께 김말봉의 다채롭고 풍부한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간 김말봉은 내용(주제)의 압도적 우위로 인한 평이하고 단순한 구조, 이로 인한 소설적 형상화의 미달, 엇비슷한 작품을 찍어내는 ‘판박이 작가’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형식적 고민을 통해 전지적 소설 방식에서 탈피해 독자들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제화에 성공하고 있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는데 정상치에서 이탈된 기인형 인물들(백 첩지, 주부, 젊은 사나이, 해골 노인)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 내용(노인에게 채찍을 가하는 인물들의 연합)을 담고 있는

*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외부 액자의 파격성을 긴 호흡의 내부 액자가 추리하듯 밝혀냄으로써 독자들의 긴장감은 유지되고, 내부 액자의 여로형 서사는 회차별로 독립성과 연결성을 가지며 관우와 진화의 반복되는 인연을 운명적으로 물들이고 있다. 비개연성의 개연성, 즉 서사의 논리를 해치면서까지 계속되는 우연의 중첩은 인과의 절대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남녀 주인공의 형상화에 꽃, 뱀, 바람 등의 자연적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인물의 서사성은 약화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강화되는데, 관우가 꽃으로 진화가 뱀으로 상징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지만 은유화된 이미지가 실제에 출현할 때 사실적 설명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들은 운명의 절대성을 배가시키는데, 운명은 삶이, 사랑이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마력, 신앙으로 증명됨으로써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힘이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고 이러한 그로테스크 판타지는 인간의 사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마력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꽃과 뱀』이 김말봉의 작품 중 체재와 구성 면에서 가장 김말봉 ‘답지’ 않은 작품(스님이라는 체재, 사회적 리얼리티의 제거, 환상적인 요소)이며 주제 면에서 가장 김말봉 ‘스러운’ 작품(연애소설적 형식, 운명론적 세계관)이라 전제하고 『꽃과 뱀』의 독특성과 보편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밀림』과 『절레꽃』 속에 갇힌 김말봉의 작품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며 다양한 작품 해석을 기대하게 한다.

핵심어 : 꽃과 뱀, 액자소설, 여로형 서사, 운명애, 그로테스크 판타지

1. 들어가며

김말봉이 일제 시기 9년의 절필을 끝내고 해방 이후 첫 번째로 발표한 소설은 『가인의 시장』(『부인신보』, 1947.7.1-1948.5.8.)이다. 김말봉은 9

년 만에 글쓰기를 재개한 만큼 웅장한 ‘의도와 발분’으로 연재에 주력하였으나 해방 이후 사회의 혼란상이나 출판계(잡지사)의 사정으로 연재가 지속될 수 없었다. 휴재와 결호가 반복되던 중 1948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달 간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4월 8일부터 다시 연재되었다. 이후 1948년 5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연재되다가 완결되지 못하고 결말이 없는 미완의 작품으로 종결된다.

『꽃과 뱀』은 1949년 문연사에서 초판 발행되었다. 『가인의 시장』이 연재 당시 미완으로 끝나고 1951년 문연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 『화려한 지옥』으로 제목이 바뀌고 결말이 보충된 것과 함께 내용의 부분적 삭제와 보충, 목차 등이 변경되어 출판된 것으로 볼 때 『꽃과 뱀』은 김말봉이 해방 이후 발표한 소설 중 첫 완결작인 셈이다.

해방기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재 목과 목차가 없고 회차로 진행되는 것(총 11회)으로 보아 잡지에 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초판본은 확인 불가능하고 1957년 문연사 발행본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초판본 발행 이후 1957년까지 15권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작품의 대중적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과 별도로 1954년 『바람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계』에 연재되는데 목차의 진행 상황이나 내용이 『꽃과 뱀』과 동일하다. 『꽃과 뱀』의 연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후 다른 잡지에 재연재 됨으로써 연재 예고나 작가의 말 등을 기대하였으나 『여성계』의 부분적 결실로 이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¹⁾ 『바

1) 『여성계』는 1952년 7월 한국전쟁 기간 중에 창간되어 월간지 형태로 간행된 잡지이다. 임영신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여성계사에서 발행되어 1952년 7월부터 1959까지 통권 8호로 중단되었으며 국관 250페이지 내외,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되었다. 『여성계』의 발행부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성계』가 전국적 판로망을 갖추고 있었음을 다음 글에서 확인했다. “우리 잡지 판매부수는 『현대여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잡지 내용도 그러하지만 전국에 판로망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원경 엮음, 『승당 임영신 박사의 빛나는 생애』, 민지사, 2002, 115쪽.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여성계』는 1952년 7월호, 1952년 11월호, 1955년 1월~12월호, 1956년 1~12월호, 1957년 1월호, 4월호, 5월호, 7월호,

람의 향연』은 1961년 김말봉 작고 후 동일한 제목으로 신화문화사에서 출판되는데 작가의 사후 일주기를 기념하여 ‘그의 이백여 작품 중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이채를 띤 작품을 선택하여 출판’하였다는 사실, 과거 문연사에서 조판하였던 지형을 빌려 이 책을 제작하였다는 머리말의 내용을 통해서도 『바람의 향연』이 『꽃과 뱀』과 동일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

한국전쟁 이후 김말봉의 인기작인 『푸른 날개』, 『생명』에 대한 연구적 성과가 축적된 가운데³⁾ 최근 『가인의 시장』,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김말봉 해방 이후 작품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⁴⁾ 반면

12월호, 1958년 1월~6월호, 8월~9월호, 11월호, 1959년 1~2월호이다. 1952년 7월호는 서강대학교 도서관에, 1952년 11월호는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5년 이후의 자료는 1955년 5월호만 신라대학교 도서관에 있고 나머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신은미, 「1950년대 『여성계』에 나타난 여대생 인식」,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9, 1~2쪽.

- 2) 앞선 내용을 연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말봉, 『꽃과 뱀』, 문연사, 1949. 책 뒤의 서지 사항을 보면 초판 발행일이 1949년으로 되어 있다.
 김말봉, 『바람의 향연』, 『여성계』, 1954.1~1955.1.
 김말봉, 『바람의 향연』, 신화문화사, 1962.
 김말봉, 『(애정소설) 꽃과 뱀』, 청산문화사, 1962.
- 3) 윤경남, 「『푸른 날개』와 그림자」,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73~90쪽.
 김우규, 「김말봉 문학의 대중성과 종교성」,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91~98쪽.
 황영숙, 「김말봉 장편소설 연구-『푸른 날개』와 『생명』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377~405쪽.
 안미영, 「김말봉의 전후소설에서 선, 악의 구현 양상과 구원 모티프-〈새를 보라〉, 〈푸른 날개〉, 〈생명〉, 〈장미의 고향〉에 등장하는 ‘고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3,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317~340쪽.
- 4) 정하은, 「반속 정신의 금자탑을 세운 『화려한 지옥』」,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99~133쪽.
 최미진, 김정자, 「한국전쟁기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연구」,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293~321쪽.
 박선희, 「김말봉의 『가인의 시장』 개작과 여성운동」, 『우리말글』 54, 우리말글학회, 2012, 267~295쪽.

앞선 두 작품 사이에 끼어 있는 『꽃과 뱀』 혹은 『비람의 향연』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턱 없이 부족하다.

『꽃과 뱀』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박산향의 논문 단 한 편이다. 박산향은 『꽃과 뱀』이 남녀의 애정문제를 소재로 종교적인 색채와 판타지적 요소를 함께 보여주는 소설이라 말하고 대중성과 예술성, 욕망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 현실과 판타지 등의 양면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박산향의 논문은 『꽃과 뱀』을 연구 대상으로 한 단일 논문이라는 점에 의의를 지니지만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김말봉 대중소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운데 『꽃과 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차용된 인상을 갖게 된다.⁵⁾ 김말봉 소설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소설을 통시적으로 살핀 박산향의 박사논문에서도 『꽃과 뱀』은 제외되어 있다.⁶⁾

소논문을 제외하고 김말봉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종합적, 통시적으로 고찰한 학위논문에서도 『꽃과 뱀』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김말봉의 생애, 창작관에 대해 살피고 단·장편 11편을 주제론적으로 고찰한 홍은희 논문은 식민지, 광복, 한국전쟁의 순으로 발표 작품을 통시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삶의 문제와 윤리의식, 사회 문제와 개혁의지, 신앙의 문제와 기독교적 이상주의로 주제화하였다. 홍은희의 논문은 연구대상의 외연을 확대하고 이를 통시적으로 접근하여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한 점, 그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편을 포함한 점 등의 성과는 인정되나, 연구 대상 선정의 작위성과 대표 작품 중심의 논의는 연구적 한계로 남는다.⁷⁾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꽃과 뱀』은 개별 논문들은 물론이고 김말봉의 소설을 통시적으로 살핀 학위논문에서도 제목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이

이병순, 「김말봉의 장편소설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52~73쪽.

5) 박산향, 「김말봉 소설 『꽃과 뱀』에 나타난 양면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4권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95~111쪽.

6) 박산향, 「김말봉 장편소설의 남녀 이미지 연구」, 부경대 박사논문, 2014.

7) 홍은희, 「김말봉 소설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02.

는 『꽃과 뱀』의 독특성 때문일 터인데, 본고는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김말봉의 작품 세계를 다채롭게 만드는 요소라 생각한다. 즉 『꽃과 뱀』은 김말봉의 작품 중 체재와 구성 면에서 가장 김말봉 ‘답지’ 않은 작품이며 주제 면에서 가장 김말봉 ‘스러운’ 작품인 것이다.

해방 이후 김말봉 소설을 연구한 논문에서 대부분 주제화 되는 내용은 작품의 대사회적 견인력과 기독교적 색채이다. 이는 작가의 개인적 이력과 맞물려 소설을 해석하는 유용한 자원이 된다. 김말봉의 후반기 소설은 현실적 시간이 소설적 시간과 나란히 병행되는 특성 때문에 ‘열쇠소설’ 혹은 ‘사회적 멜로드라마’라는 명칭이 부여되거나⁸⁾ 크리스찬의 인간성 회복을 기원하는 종교소설이다.⁹⁾ 해방기 공창제 폐지 운동을 입법화하기 위해 쓰인 『가인의 시장』,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피난의 현실적 전개 과정을 정확히 재현하는 가운데 작가의 우익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별들의 고향』, 피난살이의 고단함을 그린 『태양의 권속』, 『옥합을 열고』, 돈과 사랑의 대립 구도에서 연애의 사회성을 살핀 『푸른 날개』, 『생명』 등은 당대 사회 현실의 재현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위적 가치로서 반공주의적, 기독교적 정신의 구현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반면 『꽃과 뱀』에는 시대적(시·공간), 사회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시간적 요소는 현실적, 사회적 리얼리티가 아니라 주인공 관우의 나이 들에 따른 세월의 흐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암자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여로형 서사는 정주지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운명성에 방점이 놓인다.

해방 이후 김말봉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은 각각의 시기(해방기-한국전쟁기-피난기)에 서울, 대구, 부산의 로컬리티가 갖는 특성을 통해 세대

8) 과거나 현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데, 등장인물이나 배경 등을 바꾸어 소설화하는 것을 ‘열쇠소설’이라 하고 멜로드라마적 구조(멜로성)와 사실적인 사회 역사적 배경(사회성)을 결합시킨 형식을 ‘사회적 멜로드라마’라 한다. 이병순, 앞의 논문, 2012, 64쪽, 최미진, 김정자, 앞의 논문, 2005, 298쪽.

9) 김송현, 「크리스찬의 인간성 회복-김말봉 씨의 <옥합을 열고>를 중심으로」, 『새 가정』, 1966, 37~41쪽.

소설, 사회소설적 분위기를 갖는 반면 『꽃과 뱀』은 기이한 그로테스크 판타지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현실성을 거세하고 소설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이끈다. 특히 제재 면에 있어서 남성 주인공이 스님으로 설정된 것도 상당히 이채롭다.¹⁰⁾ 이는 송하춘이 『꽃과 뱀』이 김말봉 소설을 통틀어 가장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한 지점과 일맥상통한다.¹¹⁾

이처럼 김말봉 ‘답지’ 않은 제재와 배경은 『꽃과 뱀』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주조하지만 반면 소설을 주제화하는 방식은 다분히 김말봉 ‘스립다.’ 종교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남녀 주인공, 관우와 진화의 사랑이야기는 전통적인 김말봉식 연애소설의 공식을 따르고 ‘모든 것은 될 대로 되었다’는 삶의 진정한 주제자는 ‘운명’이다.¹²⁾ 사랑을 위해 운명을 거역하려 하지만 결국 운명은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그간 김말봉은 내용(주제)의 압도적 우위로 인한 평이하고 단순한 구조, 이로 인한 소설적 형상화의 미달, 엇비슷한 작품을 찍어내는 ‘판박이 작가’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¹³⁾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형식적 고민을 통

10) 해방 이후 김말봉 작품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기독교주의’이다. 주인공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부모로 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연애로 매개되는 비기독교적 표상(비기독교주의, 공산주의)과 근접해 감으로써 기독교를 부정, 비난한다. 하지만 이들 곁에는 연애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기독교적 구원의 여신이 자리하고 있어 결국 자기부정을 통해 하느님에게로 인도된다. 이러한 인물 구성을 볼 때 『꽃과 뱀』의 ‘스님’이라는 제재는 상당히 이채롭다. 단 ‘스님’이라는 역할은 소재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뿐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종교적(불교)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11) 단행본 출간 전에 연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연재 지면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설화적 모티프와 가학적, 피학적 사랑 등은 김말봉의 작품 세계를 통틀어 상당히 예외적이라 할 만하다. 초반부의 인물 설정이나 스토리는 ‘조신몽’ 설화를 연상케 한다. 송하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 전:1917-195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12) 신동욱, 「여성의 운명과 순결미의 인식」,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57~72쪽.

박산향, 「김말봉 단편소설의 서사적 특징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117~138쪽.

해 전지적 소설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이야기의 전개와 함께 독자의 흡인력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는 김말봉 해방 이후의 첫 완결작인 『꽃과 뱀』을 분석함으로써 신문에 연재된 인기작 중심의 편향된 연구를 지양하는 개별 작품의 의미론과 함께 김말봉의 다채롭고 풍부한 작품 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미학적 실험과 운명적 멜로드라마

2.1 액자식 구성을 통한 주제적 완결성

『꽃과 뱀』은 시작부터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설정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숲골댁은 이 집에 들어온 지 삼 개월밖에 되지 않은 가정부이다. 집안의 곳곳을 소제하고 가사를 돌보아야할 식모이지만 ‘사랑이 다섯 개나 되는 방이며 백 평이 넘는 소제는’ 백 침지가 맡아 보고 자신은 네 식구의 식사와 빨래만 하면 되는 ‘장난감 같이 손쉬운 일들이었다.’

식모이지만 여러 곳에 접근이 제한된 화자 숲골댁의 눈에 비친 이 집과 사람들은 기이하다. 이 집의 심복하인인지 가까운 일가인지 알 수 없는 애꾸눈의 백 침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고 차가운 웃음을 웃는 젊은 주부, 그의 남편인 듯한 한 쪽 귀가 없는 청년 등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숲골댁을 제외하고 비밀을 공모하고 있다.

숲골댁에게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등의 금지의 조항이 많아질수록 작품의 긴장감은 높아진다.¹⁴⁾ 안채에서 사랑채로 연결된 판자문에 적힌 ‘불

13) 김남천, 『작금의 신문소설-통속소설론을 위한 감상』, 『비판』제52호, 비평사, 1938. 12.

14) 숲골댁이 들어온 지 석 달이 접어들었는데도 그는 뜰과 사랑으로 통한 판자문 앞까지만 끌고 사랑 마당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돼 그 때문에 사랑채의 방 모습이나 뜰의 넓이 같은 것은 전연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중략) 오후 네 시가 되어 판자

허단입¹⁾이 주는 단절감, 접근이 금지된 뒤편, 정기적인 의사의 방문과 뒤편 채로의 출입 등 인물과 공간의 성격이 모두 의심스럽다. 독자들은 숲골택의 시선을 따라 이 집 사람들에게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된다.

잘 마르지 않는 빨래를 다림질하던 어느 날 밤 숲골택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뒤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신음소리를 듣게 된다. 그간 자신에게만 출입이 금지되었던 뒤편에 대한 궁금증이 쌓여가던 중 신음소리를 듣게 되자 두려운 가운데서도 뒤편을 엿보게 된다. 뒤편의 방문이 열리고 나오는 젊은 주부의 손에는 기다란 채찍이 들려 있고 함께 젊은 사나이도 뒤따른다. 반쯤 열린 영창문 사이로 머리가 허영게 세인 늙은이가 두 손을 결박당한 채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주부의 남편으로 생각했던 한쪽 귀 없는 청년이 해골 같은 늙은이의 아들이라는 사실, 주부가 사나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놀라움을, 결국 아내와 아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늙은이에게 채찍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숲골택은 기함을 한다. 더욱이 늙은이에게 채찍을 가하고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영큼한 농을 치는 기이한 모자 관계는 소설을 더욱더 그로테스크하게 만든다.

이 집 사람들이 그간 통제와 금지를 통해 숨기려 했던 음모적 사실을 발견한 숲골택은 날이 새자 집을 떠난다. 나가면서 백 침지에게 이 집은 도깨비들이 사는 집이라고, 당신도 얼른 이 집을 떠나라고 권한다. 숲골택에게서 들은 ‘도깨비 집’이라는 말을 되뇌며 백 침지는 회상에 잠긴다. 이 작품은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외부 액자가 숲골택의 퇴장으로 마무리 되고 백 침지의 회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부 액자가 열리면서 외부 액자의 궁금증을 내부액자를 통해 풀어가는 액자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작가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민 중의 하나는 작품을 전

문 밖에 요령소리가 나면 주부는 달려가서 판자문 고리를 벗긴다. 숲골택에게는 이 문고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다. (『꽃과 뱀』, 6~7쪽.)

개해 나가는 방식, 작품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작품의 배경, 인물 등의 반영도 다르게 될 수 있다. 액자소설이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포용하는 것으로 액자 속 사진처럼 두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액자 밖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는 서로 종속적인 경우가 많으나, 밖의 이야기는 주로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안의 이야기가 사건 전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비중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단일 서술자가 독자에게 들려주는 단일 소설과 달리 액자소설은 액자부와 내부 이야기라는 복수의 서술 주체를 가지므로 독자들은 훨씬 입체적으로 독서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즉 서술자 분화와 담화의 복잡한 과정에 의해 독자에게 특별하고도 상이한 인각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¹⁵⁾

이 작품에서 외부 액자는 단순한 도입부의 역할, 내부 이야기에 종속되는 한계를 벗어나 독자들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외부 액자에서 숲골덕과 함께 놀라움과 궁금증을 가진 독자가 백침지의 회상으로 내부 액자로 자연스럽게 이끌리면서 소설의 극적 긴장감이 유지된다. 자이들러가 밝힌 바와 같이 외부 액자는 내부 이야기와의 거리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서사에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특유의 예술적 효과를 자아낸다.¹⁶⁾ 정상치에서 일탈된 기인형 인물들(백침지, 주부, 젊은 사나이, 해골 노인)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는 외부 이야기의 파격성을 긴 호흡의 내부 액자가 추리하듯 밝혀냄으로써 단일소설에서 성취할 수 없는 미학적 효과를 얻게 된다.

회상으로 열리는 내부 액자에서 백침지는 주인공 민관우가 여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민관우와 진화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사랑을 더욱 운명적으로 물들이거나, 사랑하는 연인들의 사후(死後)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전하는 서술자이다. 제1회의 후반

15) 이영애, 「김동인 액자소설의 담론적 특성」, 경일대 석사논문, 2010, 6~7쪽.

16)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298~300쪽.

부에서, 외부 액자에서 내부 액자로의 자연스러운 진입과 함께 백 첨지는 ‘통도사의 공양승 묘운’으로, 채찍을 맞고 누운 해골 민관우는 ‘통도사의 젊은 중 혜남’으로 분해 삼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이야기가 재시작 된다.

이 작품의 내부 이야기는 회차를 거듭하여 반복되는 에피소드를 통해 민관우와 진화의 사랑, 질곡을 다루면서 그 운명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단편소설의 미학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액자구조가 장편소설에서 사용될 때 내부 이야기의 부피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이야기 안에 여러 내부 이야기가 들어간 순환적 액자소설이거나 사교적인 즐거움에 목적을 두는 목적 액자소설은 아니다. 이 작품은 외부 이야기 안에 하나의 내부 이야기, 민관우와 진화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단일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 단일한 이야기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맞물려 환상적으로 재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부 이야기에서 민관우와 진화의 만남과 이별이 거듭되는 가운데 외부 액자의 실마리가 10회에서 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와 외부는 맞물리게 된다. 내부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외부 액자의 강렬한 인상을 유지하는 독자들은 정체가 밝혀진 백 첨지와 민관우를 제외하고 주부와 젊은 사나이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었는데 10회에서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들의 기이한 가족 관계도가 완성된다.

민관우에게 채찍을 가하는 주부는 진화가 관우와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 난실이라는 사실, 한쪽 귀가 없는 젊은 사나이는 진화의 남편 고경덕의 혼외 자식을 민관우가 주어다 길렀다는 것, 결정적으로 난실과 노석이 민관우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이 민관우의 자발적 요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부 액자의 그로테스크함은 서사적 당위성을 얻게 된다.

11화에 이르러 내부 이야기는 이물감 없이 외부 이야기와 결합되어 닫힌 액자형 구조로 마무리된다. 변함없이 날마다 채찍질이 연속되면서 관우의 혼절과 환상(꿈)이 잦아진다. 꿈속에서 진화를 만난 관우는 진화의 무릎을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빠져 들고, 난실이 들어왔을 때 관우는 살아 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평화로운 얼굴로 숨이 끊어져 있었다. 같은

날 서울 진화의 집에서도 초상이 났다.

고경덕 씨는 진화를 데리고 서울에서 살았다. 깨끗하게 늙은 진화는 별로 아픈 곳도 없이 뜨락을 소요하다가 방으로 들어와 누운 것이 그대로 잠자듯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날 진화는 나이에 맞지 않게 짙은 화장을 하고 농속에 깊이 들었던 녹이홍상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전에 깨끗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관우에게로 시집을 갔는지도 모른다.’
묘운이가 뒷날 친지에게 한 말이였다. (『꽃과 뱀』, 244쪽.)

관우의 사망과 진화의 죽음이 이어지고,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사랑의 결실은 죽음으로써 완성된다. 한낱한시에 완성된 관우와 진화의 굳센 사랑을 결혼으로 의미화 하는 묘운의 전언을 통해 이야기는 운명적 사랑의 강렬함을 전한다. 이 작품에서 외부 액자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진입, 내부 이야기에서 외부 액자로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은 백 침지에서 묘운으로, 묘운에서 백 침지의 시선으로 액자를 관장하는 서술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사적 완결성은 높아지고 후일담처럼 전달되는 덧붙임을 통해 주제적 완결성은 높아진다.

2.2 여로형 서사와 운명적 사랑

앞 절에서 작품의 전체구조인 액자구조와 도입부와 종결부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액자를 다루면서 형식적 특징에 집중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내부 이야기를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삼십년 전 백 침지는 통도사의 공양 승 묘운이였다. 그가 속환(俗還) 되어 삼십년을 지난 오늘에도 통도사에서 때던 불을 여기 이 집 주인 민관우 씨의 집에서도 때고 있느니만큼 그의 운명은 별다른 변화도 비약

도 없다.

그러나 그가 따르고 아끼어 오늘까지 이른 민관우…… 그때 통도사의 깊은 중 혜남은 너무도 희한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 (『꽃과 뱀』, 13-14쪽.)

내부 이야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서사의 중심 주제는 강하게 환기된다. 관우를 따르는 묘운의 운명은 예전(묘운, 액자의 내부)이나 지금(백침지, 액자의 외부)이나 변함이 없지만 혜남에게는 ‘희한한 운명의 길’이 예고 되어 있었다. 내부 이야기에서는 관우의 나이 들에 따른 시간의 경과와 여로형 서사를 통해 ‘운명의 길을 걷는’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펼쳐진다.

통도사의 깊은 중 혜남은 어느 초파일 전날 밤 ‘꽃 속에 뱀이 있고 뱀이 처녀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꿈속의 처녀를 초파일 날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상사병에 걸려 번뇌하게 되고 결국 절을 등지게 된다.

제2화에서는 환속 후 4년을 ‘산도 넘어보고 강도 건너보고 눈을 멀리 누리 위에 두기로 소원하여 관우(觀宇)로 개명하고’ 경남 사천의 성내 보통학교 교원이 된 스물네 살의 민관우를 만나게 된다. 꽃다운 청춘의 사년을 길 위에서 보낸 관우는 그토록 잊으려고 노력했던 처녀가 담임한 학생의 누이로 눈앞에 나타나자 깊은 운명을 절감한다. 관우는 진화 또한 사 년 전 초파일 날 통도사에서 관우를 보았으며 항상 그리워했노라는 고백을 듣자 서로가 ‘지중한 전세부터의 인연’임을 깨닫게 된다. 관우는 진화의 사랑 앞에 일체의 행복을 송두리째 바치기로 결정하지만 폐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다. 진화의 도움으로 사십일 만에 병이 쾌차한 관우는 묘운이 거처하고 있는 구절사로 요양을 떠난다.

진화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잡혀 관우의 치료비를 대는 동안 아버지의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고경덕(노랑 수염쟁이 늙은 할아버지)의 돈으로 회사를 살리게 되자 둘의 약혼이 추진된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진화는 ‘충각과 혼인하면 생리사별할 운명이니 상처한 사람¹⁷⁾과 결혼’ 하여야

17) “마침 저 양반이 말이다 재작년에 상처를 하고 마땅한 규수를 물색하는 중에 내게 다 그런 뜻을 보이지 않겠니? 생각해 보아라 내게는 은인이요 또 너는 사주대로

된다는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입으로 짧게 언급된 사주는 저주처럼 진화와 관우의 생애를 지배하여 살아서는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한다는 복선적 역할을 한다. 진화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이기 위해 사흘을 굶다가 구절사로 가서 머리를 깎는다. 그러나 부모와 관우가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재차 시집갈 것을 권하자 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자살을 결심하지만 혼례복을 입고 함께 자살을 약속한 관우가 밤새 도망친 것을 알고 비겁한 자식이라 욕하고 혼례를 올린다. 관우는 나름대로 평생 건강치 못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진화의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성급한 자살 결심을 원망할 수도 있으니, 1년 후에 다시 만나 사랑을 재확인하기로 하고 절을 떠난 것이다. 그러다가 진화가 관 속에 누워 있는 꿈을 꾸고 다시 솟골로 돌아갔으나 진화의 야멸찬 냉대에 발길을 돌린다.

다시 5년의 세월이 흘러 스물아홉 살이 된 관우는 내운사 근처 두옥에서 묘운과 함께 살고 있다. 우연히 비를 피해 들어선 노파와 젊은 처녀(옥련)를 집에 들이면서 여름 내내 즐거운 교류를 한다. 노파는 관우의 생김새와 됃됨이를 귀히 여겨 옥련의 짝으로 점찍고 급히 식을 올리려 한다. 간단히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관우는 장인, 장모를 만나게 되는데 옥련의 아버지가 고경덕이고 의붓어머니가 진화임을 알게 된다.

이후 서른세 살의 관우는 대구 아래 경산의 ‘무릇골’에 나타난다. 혼례 날 장모로 나타난 진화를 보고 혼절한 관우는 묘운의 손에 이끌려 나와 정처 없는 방랑의 길에 올라 사 년을 떠돌이 생활을 한다. 노독으로 몇 달을 한 초상집에 기거하던 중 주인 과부댁의 청을 듣게 된다. 이 집의 주인인 고 주사가 올 터인데 그와 최후 담판을 지어달라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은 과부댁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대가를 지

한다면 상처한 곳으로 가야만 될 테니 이왕이면 돈은 많겠다, 아 전라도에서도 쌀만 만석 추수하는 부자는 그리 흔하지 못하다. 그 사람이 아들이 없이 단지 딸 하나뿐이란 말이다. 네가 가서 아들만 낳으면 그 집 상속은 네 아들이 할 것이 아니냐 말이다. 그리고……” (『꽃과 뱀』, 71쪽.)

불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서게 된 관우는 다음 날 고 주사 부부를 맞이하게 된다.

관우가 이 집 집주인인 듯 대문으로 나갔을 때 인력거에서 내리는 남자는 두꺼운 외투 깃 속에 턱을 묻은 노랑 수염이다. 다음 인력거에서 고동색 모본단 두루마기 앞섶을 쥐고 내려서는 여인은 틀림없는 진화다. (중략)

관우는 빈 잔 한 개를 진화 앞으로 내밀어 놓고 주전자를 들었다. 길게 아래로 바른 관우의 속눈썹이 주전자를 내려놓는 것과 함께 슬쩍 위로 치켜졌다. 눈썹 속에서 환히 광채가 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진화의 눈과 마주쳤다. 지극히 짧은 일순간이었으나 관우는 이미 진화와 무궁한 정화(情話)를 속삭인 듯 흐뭇이 마음이 즐거웠다. (『꽃과 뱀』, 154~157쪽.)

혼례 사건 이후 사 년 만에 다시 만난 관우와 진화는 놀라움보다 반복되는 인연의 운명성에 오히려 흐뭇한 감정을 느낀다. 몇 해를 전혀 다른 공간 속에 떨어져 있어도 결국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 이들의 필연 이야말로 운명 말고는 무엇이랴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세계의 모든 것은 뒤로 물러 선 채 찰나에 마주친 두 눈동자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살뜰히 이야기 나누는 듯이 정겹기만 하다.

진화는 다시 만난 관우를 놓치기 싫어 과부댁이 원한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관우와 이 집 시누이와의 혼례를 추진하지만 처녀가 첫날 밤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아내가 죽자 관우는 또다시 방랑길에 오른다. 팔도강산의 절간을 골고루 순례하는 동안 칠 년이 지나고 관우는 인생의 황혼, 사십이 되었다. 관우와 묘운은 며칠 만 바람 쏘고 오겠다는 인사를 남긴 지 칠 년 만에 무릇골로 다시 향한다.

약관의 통도사 젊은 중 혜남은 불혹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여로 위에 있다. 여로형 서사는 작중인물이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공간 이동이 중심이 되는 서사로,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에 이르는 인물의 여로가 중심 사건이며, 작품의 주제 전달에도 핵심적 기능

을 한다.

여로형 서사가 여행 서사의 하위 범주이기는 하지만 이 작품을 여행 서사가 아닌 여로형 서사로 굳이 변별한 것은 여행은 본질적으로 다른 경험(자신이 위치한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전체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장소 이동이라는 피상적 의미보다 개별 주체의 욕망과 경험을 통한 자기 발견과 재구성이라는 요소가 두루 내재된 개념이다.¹⁸⁾ 하지만 관우는 여러 공간을 이동, 여행하지만 개별적 공간의 의미화나 자기 발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여로형 서사는 작중인물이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작품의 중심 구조를 이루며 여기서 공간 이동은 지리적 여행에 한정된다. 따라서 여로형 소설은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에 이르는 인물의 물리적인 공간 이동 즉 여로에 방점이 놓이고 관우의 여로는 회차별로 독립성과 연결성을 가지며 관우와 진화의 운명적 사랑을 반복적으로 에피소드화하고 있다. 짧은 만남, 긴 이별로 여행이 계속 될수록 이들의 운명은 더욱 끈끈하고 질기게 점착된다.

관우와 묘운은 칠 년 만에 돌아온 무릇골에서 귀가 잘린 채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다. 돌멩이처럼 길에서 주었다 하여 ‘노석’이란 이름을 붙여 기른 사내아이는 사실 과부댁이 고경덕에게 겁탈 당해 낳은 아이로 이후 과부댁은 정신을 놓고 우물에 빠져 죽는다. 관우는 진화를 빼앗아 간 고경덕의 ‘씨’를 자신이 기른다는 것에 깊은 운명의 수수께끼로 느낀다.

과부댁의 장례로 관우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된 진화는 초상과 상관없이 칠 년 만에 보는 관우에게 더욱 큰 사랑의 감정은 느끼고 관우 또한 진화에게 강렬한 애정을 느낀다. 진화가 계속해서 관우를 결혼시키려는 이유는 자신과의 결혼이 운명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과 끈이 있는 다른 여성과 관우를 결혼시켜 옆에서라도 지켜보기 위한 차선

18) 이소운, 「여로형 소설의 크로노토프」, 『국어교육연구』 41, 국어교육학회, 2007, 247~282쪽.

책인 것이다. 친인척이라는 명분(관우와 결혼 할 난실은 진화의 먼 일가 조카이다)으로 관우를 옆에 두고 싶은 진화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다른 여성과 결혼시켜야 하는 운명에, 관우에게 채찍질을 가함으로서 울분을 표출한다. 관우 또한 이 기이한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의 채찍을 받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진화가 그리운 날이면 관우는 난실에게 채찍질을 부탁한다. 이때의 채찍질은 단순한 가학과 피학의 관계가 아니라 보통의 사랑하는 남녀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진화와 관우의 운명에 대한 몸부림이자 수용의 낙인이다. 또한 진화와 관우를 둘러싸고 실타래처럼 엉킨 인간관계에 대한 희생제의이다. 고경덕의 처 진화를 관우가 포옹하고 고경덕의 씨노석이가 관우의 처 난실을 희롱하는 강렬한 운명의 인과 속에서 관우는 진화를 꿈꾸며 죽어간다.

『꽃과 뱀』의 내부 이야기는 사랑을 가로막는,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인들의 노력에 집중하지 않는다. 전세(前世)에서부터 내세(來世)까지 이미 정해져 버린 운명의 순리를 따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도 사랑의 강도를 높이고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의 강렬성은 찰나의 욕망을 압도한다. 관우와 진화가 서로에게 평생 동정(童貞)으로 살았다는 것은 운명적 사랑에 순종한 것이며 이로써 이들에게 사랑은 숙명이 되었다. 그 운명의 힘 속에 신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데서 이들의 사랑은 적극성을 띠게 된다.

2.3. 그로테스크 판타지를 주조하는 초자연적 힘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뜻한다. 운명은 삶이, 사랑이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마력, 신앙으로 증명됨으로써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유의 일체가 어떤 힘이나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 힘에 의하여

신상에 닥치는 길흉화복을 우리는 운명이라 불렀으며 이러한 사상을 속명론 또는 운명론이라고 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우와 진화의 사랑은 여로형 서사를 통해 운명성을 극대화한다. 비개연성의 개연성, 즉 서사의 논리를 해치면서까지 계속되는 우연의 중첩은 인과의 절대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더불어 이 작품을 더욱더 운명적으로 몰들이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들은 운명의 절대성을 배가시키고 작품 전체를 이성적 해석을 거부하는 그로테스크함으로 몰들이는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제공하는 감각적 경험은 기존의 이성적 사유에 대한 전도로서 반합리적이다.

이 작품의 제목 ‘꽃’과 ‘뱀’은 관우와 진화의 상징적 치환이자, 진화가 그린 그림의 제목이기도 하다. 즉 꽃은 관우를, 뱀은 진화를 은유하는데,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인 동시에 순결함, 새로움의 상징이며 여성적인 것이지만¹⁹⁾ 이 작품에서는 관우의 수동성, 깨끗한 영혼 등을 표상한다. 진화의 관상을 보고 사체(蛇體)로 생겼다는 묘운의 말처럼 뱀은 진화를 상징한다. 특히 뱀 상징은 양가성을 갖는데 전체를 강조할 때와 주요한 특성을 강조할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달라진다. 예컨대 껍질을 벗는 모습, 헛바닥을 내미는 모습, 몸 전체가 물결치는 모습, 쉬잇 소리, 희생물을 등글게 감으며 공격하는 방식 등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²⁰⁾ 이 작품에서 뱀(진화)은 꽃으로 상징되는 관우의 몸을 칭칭 감고 그 중심(얼굴, 목)을 향해 갈라진 붉은 헛바닥을 날름거린다. 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뱀의 이미지, 혹은 희생물에 피리를 튼 뱀은 디엘에 의하면 성서적 상징을 환기하며 부정의 원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나무를 감고 있는 뱀의 형태가 악의 근원으로서의 생명과 부패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희생물을 향해 춤추는 찢어진 헛바닥 또한 생명과 부패의 근원으로서의 악을 상징하거나 창조나 생명과 대립되는 파괴, 죽음, 혹은 불모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한다.²¹⁾ 진화는 ‘뱀’으로 환기되는 것 외에도 ‘바

19)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84쪽.

20) 위의 책, 208~218쪽.

람'으로 자주 언급됨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1949년 단행본 제목이 『꽃과 뱀』이고 1954년 『여성계』에 연재된 제목이 『바람의 향연』인 것을 볼 때 '뱀'과 '바람'은 모두 진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바람은 능동적이고 격렬한 상태에 있는 공기로, 특히 이집트와 그리스의 경우 악의 힘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²²⁾

관우의 인생에 따리를 튼, 바람을 일으키는 진화는 관우의 종교적 삶을 뒤흔드는 '악'의 요소로서 인간적 욕망을 표상하지만 이들의 대립적 성격이 강화될수록 운명성 또한 강화된다. 이처럼 남녀 주인공의 형상화에 꽃, 뱀, 바람 등의 자연적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인물의 서사성은 약화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강화된다. 그로테스크는 로마 문화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술양식으로 당시 하나의 그림 속에 인간적인 요소와 동식물적인 요소들이 함께 얽혀 결합된 양식이 발전된 것이다. 그로테스크는 사실성이 차단된 자연과의 유사성이라는 맥락에서 충격과 섬뜩함,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남녀 주인공이 자연물로 은유화되는 것과 함께 내부 이야기의 시작이 '희한한 운명의 길을 예고하는' 관우의 꿈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꿈은 복선적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의 조짐을 앞당겨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꽃 속에 뱀이 있고 뱀이 처녀로 변하는 꿈'은 꿈의 메커니즘 중 어떤 표상이 다른 특정 사물로 뒤바뀌는 상징적 표상으로서 예언성을 갖는다. 묘운에게 실없는 소리로 치부되는 이 꿈은 후에 관우가 사년 만에 만난 진화에게 이야기하고, 진화가 꿈을 이미지(그림)로 완성함으로써 운명적 주술성을 갖게 된다.

뱀의 상체가 중의 가슴에 합장하고 있는 손바닥을 지나 오른편 겨드랑이

21)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 주제 사전』, 청하, 1989, 301-303쪽.

22) 이승훈, 앞의 책, 187쪽.

를 빠져 왼편 귀밑으로 나와 빨간 주둥이를 중의 턱 아래에 바싹 들이댔다. 뱀의 몸은 흑칠같이 완전히 검고 번쩍번쩍 윤이 나는데 뱀의 상체는 중의 몸에 그 하체가 숨은 곳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듯이 풍성하게 피어있는 진달래 덩굴이다. 젊은 중은 가슴에 안긴 뱀을 쥐고 꿈을 보는 듯 도취되어 있지 않는가. (중략)

뱀의 주둥이 끝에는 붉은 바늘 같은 두 개의 혀바닥이 가위처럼 날름거리는데 보이진 않는다. 어찌 보면 뱀은 살아서 방금 진달래 덩굴 속에서 나무동치를 잡고 그리고 중의 가슴팍을 휘감아 턱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꽃과 뱀』, 51~53쪽.)

진화가 정열을 쏟아 그린 이 그림 한 폭은 관우의 평생을 지배하는 사랑의 약도라 해도 좋고 천애의 고아로 유리하는 관우 자신의 운명의 거울이라 해도 좋다. (『꽃과 뱀』, 174쪽.)

관우의 복선적 꿈이 예언적 기능을 수행함과 함께 운명의 초자연적 힘을 부각시키는 것이 뱀의 현실적 활동성이다. 관우가 꽃으로 진화가 뱀으로 상징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에너지를 갖고 실제에 출현할 때 사실적 설명은 불가능해진다. 그로테스크가 판타지가 되는 지점이다.

관우는 진화를 만나고 온 이후 ‘뱀이 자기 가슴에 착 달라붙어 그 예리한 혀바닥으로 자기 목에서 선혈을 빨아내고 있는’ 꿈을 꾸는데 꿈 이후 폐결핵이 걸려 사십일을 사경을 헤매게 된다. 또한 진화의 주선으로 무릇 골 시누이와 결혼을 올리던 날 신부는 진화가 결혼 선물로 보낸 ‘꽃과 뱀’의 그림을 보고 신랑의 몸뚱이에 뱀이 서리어 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온몸에 뱀의 무늬를 남긴 채 죽는다.²³⁾ 뱀에 물려 죽었다는

23) 순간 관우의 눈이 커다랗게 열렸다. 관우는 몇 번이나 눈을 서먹서먹하고 신분의 가슴을 내려다보고 앉았다. 봉긋이 솟아오른 유방을 걸쳐 불긋불긋 비늘 같은 혈반이 돌쳐 있는가 하면 그 혈반은 큰 구렁이의 몸뚱아리 넓이로 비늘 같은 무늬가 박혀져 있는 것이다. 희한하게도 구렁이의 무늬는 젓가슴을 비스듬히 지나 어깨를

소문과 함께 ‘신부는 잠옷을 입고 화관족두리를 쓴 채 관속으로 들어갔다’ 신부의 장례식이 끝난 후 허물만을 남겨놓고 사라진 뱀의 그림이나 관우의 처소에서 따리를 튼 뱀이 발견된 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힘이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고 이러한 그로테스크 판타지는 인간의 사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마력을 드러낸다.

3. 나오며

본고는 김말봉의 해방 이후 첫 완결작인 『꽃과 뱀』을 분석함으로써 신문에 연재된 인기작 중심의 편향된 연구를 지양하는 개별 작품의 의미론과 함께 김말봉의 다채롭고 풍부한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간 김말봉은 내용(주제)의 압도적 우위로 인한 평이하고 단순한 구조, 이로 인한 소설적 형상화의 미달, 엇비슷한 작품을 찍어내는 ‘판박이 작가’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형식적 고민을 통해 전지적 소설 방식에서 탈피해 독자들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제화에 성공하고 있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는데 정상치에서 이탈된 기인형 인물들(백 침지, 주부, 젊은 사나이, 해골 노인)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 내용(노인에게 채찍을 가하는 인물들의 연합)을 담고 있는 외부 액자의 과격성을 긴 호흡의 내부 액자가 추리하듯 밝혀냄으로써 독자들의 긴장감은 유지되고, 내부 액자의 여로형 서사는 회차별로 독립성과 연결성을 가지며 관우와 진화의 반복되는 인연을 운명적으로 물들이고 있다. 비개연성의 개연성, 즉 서사의 논리를 해치면서까지 계속되는 우연의 중첩은 우리로 하여금 인과의 절대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남녀 주

넘어갔다. 관우는 뱀의 무늬를 따라 저고리를 벗겨 보았다. 어깨를 감은 뱀의 무늬는 신부의 왼편 귀 밑에서 끝이 났다. 마치 진화에게서 선물로 받은 그림 ‘꽃과 뱀’에서 중의 몸에 구멍이가 감겨 있는 포즈와 비슷하다. (『꽃과 뱀』, 182쪽.)

인공의 형상화에 꽃, 뱀, 바람 등의 자연적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인물의 서사성은 약화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강화되는데, 관우가 꽃으로 진화가 뱀으로 상징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지만 은유화된 이미지가 실제에 출현할 때 사실적 설명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들은 운명의 절대성을 배가시키는데, 운명은 삶이, 사랑이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마력, 신앙으로 증명됨으로써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힘이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고 이러한 그로테스크 판타지는 인간의 사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마력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꽃과 뱀』이 김말봉의 작품 중 체재와 구성 면에서 가장 김말봉 ‘답지’ 않은 작품(스님이라는 체재, 사회적 리얼리티의 제거, 환상적인 요소)이며 주제 면에서 가장 김말봉 ‘스러운’ 작품(연애소설적 형식, 운명론적 세계관)이라 전제하고 『꽃과 뱀』의 독특성과 보편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밀림』과 『찢레꽃』 속에 갇힌 김말봉의 작품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며 다양한 작품 해석을 기대하게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말봉, 『꽃과 뱀』, 문연사, 1949.
 김말봉, 『바람의 향연』, 『여성계』, 1954.1-1955.1.
 김말봉, 『바람의 향연』, 신화문화사, 1962.
 김말봉, 『(애정소설) 꽃과 뱀』, 청산문화사, 1962.

2. 단행본

- 송하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1917-195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253쪽.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문학의 상징 주제 사전』, 청하, 1989, 301~303쪽.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84쪽.

정하은 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99~133쪽.

3. 논문

박산향, 「김말봉 소설 『꽃과 뱀』에 나타난 양면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4권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95~111쪽.

박산향, 「김말봉 장편소설의 남녀 이미지 연구」, 부경대 박사논문, 2014, 8~160쪽.

박선희, 「김말봉의 『카인의 시장』 개작과 여성운동」, 『우리말글』 54, 우리말글학회, 2012, 267~295쪽.

안미영, 「김말봉의 전후소설에서 선, 악의 구현 양상과 구원 모티프-〈새를 보라〉, 〈푸른 날개〉, 〈생명〉, 〈장미의 고향〉에 등장하는 ‘고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3,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317~340쪽.

이병순, 「김말봉의 장편소설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52-73쪽.

이소운, 「여로형 소설의 크로노토프」, 『국어교육연구』 41, 국어교육학회, 2007, 247~282쪽.

이영애, 「김동인 액자소설의 담론적 특성」, 경일대 석사논문, 2010, 7~56쪽.

최미진, 김정자, 「한국전쟁기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연구」,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293~321쪽.

홍은희, 「김말봉 소설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02, 5~180쪽.

황영숙, 「김말봉 장편소설 연구-『푸른 날개』와 『생명』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377~405쪽.

Abstract

Formal Aesthetics and Feast of Destined Love

- Kim, Mal-Bong's *Flower and Snake*

Jin, Sun-Young

This Study analyzes *Flower and Snake* which is the first finished novel after the liberation and illuminates various and abundant Kim, Mal-bong's writing world with semantics and not focusing on biased studies about popular newspaper novels. Meanwhile, Kim, Mal-bong had been received a serious criticism of stereotyped writer because of the simple structure related with shortage of imagery. In this novel, however, she makes success of topicalization through formal worries out of convention, and it satisfies reader's curious and desire.

Generally, it has frame formation. Outer frame's unreal and shocked story and oddity characters are deviated from the top and come out into the open by deep breaths' inner frame. It helps to retain reader's tension, and inner frame's narrative has independence and relationship each episode and it makes Gwanu and Jinhwa's repeated connection fatally. Probability of improbable, that is, overlaps of continuously repeated coincidence make us go forward to absoluteness of cause and effect.

For building up an image of female and male characters, writer used natural elements such as flower, snake, wind, etc. These elements make all characters' narratives weakened and grotesque images strengthened. Supernatural power covers whole story and

this kind of grotesque fantasy reveals magic power of fate which cannot be explained in human nature.

This study premises that *Flower and Snake* is not alike Kim, Mal-bong's original style(character as a Buddhist monk, remove social reality, fantasy element) in the main topics and structures among her works and it is the same as her style(love story formation, fatalistic world) in the subject side, and it pays attention of [Flower and Snake]'s uniqueness and universality. This result of study needs new comprehension about Kim, Mal-bong's writing world which was locked her popular story *Millim* (Jungle) and *Jjilrekkot* and expect various interpretation of her works.

Key words : *Flower and Snake*, Frame story, Journey Novel, Destined Love, Grotesque Fantasy.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